

# 관음보살이 중생을 기다리며 열어놓은 '문'

## ③ 해수관음도량...강화 보문사(普門寺)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우리 629번지, 강화도 옆 석모도 섬에서 다시 '섬'이라고 부르는 그 곳을 오늘날은 '산'이라 부른다. 낙가산(洛迦山). 그 이름은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보타락가산에서 왔다. 그곳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도량 보문사가 있다. 남해 보리암, 동해 양양 낙산사와 함께 3대 해수관음도량이다.

### 보문사에 가면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보타락가산의 '낙가산'은 바다 가운데 솟은 산을 말한다. 보문사가 있는 석모도는 작은 섬이다. 앞서 말한 대로 '낙가산'이다. 도량을 열었던 회정 스님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계신 곳을 찾은 것이다.

그 낙가산이 시작되는 곳에 문 하나가 열려 있다. '보문(普門)', 관세음보살이 열어 놓은 문이니 극락으로 가는 문이 틀림없다. 보문사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기다리며 열어놓은 '문'이다. 문을 지나 가파른 길을 오르면 33관음보살사리탑과 오백나한이 힘들었던 여정을 위로한다. 숨을 돌리고 눈을 고쳐 뜨면 와불을 모신 와불전, 나한전 석실,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 넉넉한 마당이 낙가산 기슭을 장엄하고 있다.

보문사의 백미는 눈썹바위 아래 모신 마애관음좌상이다. 서쪽 바다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마애관음좌상을 보기 위해선 1km 정도 가파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계단이 재미있다. 처음 12계단을 올라 가면 좌우에 석등이 하나씩 있고, 여기에서 다시 108계단을 올라간 곳에 '관음성전계단보사공덕비'가 있다. 다시 108계단을 오르면 한 쌍의 석등이 있고, 다시 118계단을 계단을 올라가면 반야용선이 있다. 거기서 48계단을 더 올라가면 마애관음좌상을 만날 수 있다. 어찌 이토록 기막힌 자리일까. 하늘과 바다와 땅이 모두 한 곳에 있는 것 같은 자리에 관음보살이 나두고 있다. 저 멀리 사바를 살피고 있는 관음보살 앞에 서면 비로소 내가 어디에 와있는지 알게 된다.

마애관음좌상은 1928년 배선주 주지 스님이 보문사가 관음성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금강산 표훈사의 이화응 스님과 함께한 불사로, 좌상의 높이는 920cm이고, 너비는 330cm에 달하는 거상이다. 크기를 축소로 환산하면 높이 32척에 너비가 11척이 되는데, 이것은 곧 관음보살의 32응신(應身)과 11면(面)을 상징한다. 마애관음좌상의 백미는 일출과 낙조다. 일출을 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낙조는 그 보다 기회가 많다. 마애관음상은 신강화팔경 중의 하나다.

###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인 635년에 회정 대사가 열었다. 여러 창건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창건설이다. 금강산 보덕굴에서 수행하고 있던 회정 스님이 이곳으로 옮겨와 절을 세우고 보니 산세가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서전 사자국의 보타락가산과 흡사했다. 산 이름을 낙가산이라 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

없이 나누시는 관세음보살 원력의 광대무변함을 의미하는 '보문'을 도량의 이름으로 썼다.

보문사를 알기 위해서는 강화도의 역사를 지나칠 수 없다. 강화도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지나간 곳이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고, 불교가 전해지던 삼국시대의 많은 불교설화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 불교가 전해진 곳이다. 381년에 아도 화상이 연 것으로 전해지는 전등사가 그렇고, 보문사가 그렇다.

조선시대에 들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거치면서 강화도에 위치한 사람들은 왕실 관계 문적들을 보관하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강화도 사찰의 국가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 불교는 활력을 얻는다. 즉 강화의 많은 사찰들의 중건 및 중수불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뤄진다. 19세기에 들어서도 강화의 여러 절에서는 중창불사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보문사도 1812년 중창불사가 이뤄졌다. 퇴락한 보문사를 중창하기로 발원한 한 스님이 선비 흥봉장이 쓴 권선문을 가지고 가람을 일신했다. 1967년에는 나한전 불사가 있었고, 1839년 명성황후의 전교로 보문사의 요사와 객실을 중건하는 등 신라 이후 관음도량으로서의 명성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른다.

### 보문사에 가려면

보문사는 강화군 서부에 위치한 석모도란 섬에 있다. 석모도는 강화군의 주도인 강화도에 인접한 작은 섬이다. 우선 강화도까지 가야한다. 김포시와 강화군을 잇는 강화대교를 이용해 강화도에 도착하면 외포리 선착장에서 석포리행 배를 타야한다. 승용차와 함께 승선할 수 있다. 보문사 가는 맛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배를 타고 가는 것. 비록 짧은 거리지만 배를 가야 한다는 게 왠지 '쉽지 않은 길'이어서 좋다. 도량을 가는 맛은 이 '쉽지 않은 길'에 있다. 도량을 찾은 보람이 배가 된다.

따라오는 갈매기들과 눈을 맞추며 7-8분 쯤 배를 타면 석모도 석포리 선착장에 도착한다. 가져간 승용차를 이용해 바로 보문사로 향하면 되고,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보문사행 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보문사까지는 약 9km인데, 3km 쯤의 전등이 고개를 넘으면 뱃길에서 본 바다의 잔상끝에 바닥을 드러낸 서해 특유의 풍경과 시간이 멈춰선 듯한 전원 풍경이 이어진다. 석모도의 풍경 속을 10 여분 달리면 보문사 입구다. 주차장에 차를 놓고 5분 정도 걸으면 도량이다.

### 보문사의 인물

- 창건주 회정 스님...창건주인 스님의 기록은 아쉽게도 각종 사서류나 불교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창건설 외에 스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는 어렵다.
- 한국 근대불교의 고승 박한영(1870~1948) 스님...스님은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에 강하게 맞서 싸



보문사의 백미는 눈썹바위 아래 모신 마애관음좌상이다. 서쪽 바다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마애관음좌상을 보기 위해선 1km 정도 가파른 길을 걸어야 한다.



마애관음좌상에서 내려다본 보문사와 석모도 갯벌



보문사 전경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석모도 자연휴양림

운 불교 운동가였으며,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교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불교 교육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백용성·한용운 스님과 함께 일제강점기에서 한국불교를 지켜낸 3대 선각자로 평가 받고 있다.

- 현대의 고승 춘성(1981~1977) 선사...스님은 한국 선종의 맥을 이은 선승으로서, 한평생 탐승 무애도인(無碍道人)으로서 무소유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근대의 대표적 고승 가운데 한 분이다. 특히 스님은 1960년대 후반 보문사 회주로 주석하면서 절의 사격을 높였다.
- 근대 보문사의 중창주 흥봉장·흥희준...앞서 말했듯 보문사의 중창에는 강화의 선비 흥봉장이 쓴 <보문사권선문>이 큰 역할을 했으므로 비록 흥봉장 자신이 재물을 내어 불사를 이룬 것은 아닐지라도 그를 중창주로 대우함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1906년에는 그의 손자인 흥희준이 할아버지의 <보문사 권선문>에 이어 <보문사후록>을 썼다.

강화 보문사=박재환 기자

### 주변보기

#### <사찰>

- 석모도 안의 절은 보문사 하나다. 인접해 있는 강화도의 절들을 소개한다.
- ▲전등사 길상면 운수리 635(외포리에서 약 25km)
- ▲정수사 화도면 사기리 464-3(전등사에서 약 10km)
- ▲적석사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74(외포리에서 약 15km)
- ▲백련사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31(적석사에서 약 10km)
- ▲형선사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550(백련사에서 약 5km)

#### <가볼 만한 곳>

- 석모도 갯벌
- 석모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생태관광지로 선정한 곳이다. 가족이 함께 해산물 채취 등을 하면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 석모도 자연휴양림(032-932-1100)
- 울창한 숲과 다양한 자생식물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한 석모도 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자연학

습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민머루 해수욕장
- 배에서 내려 보문사 방향으로 전등이교개를 지나서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 대학생들의 학술탐사와 역시 가족단위 생태교육장으로도 이용된다. 천연기념물(419호) 저어새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 마니산-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산으로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다.
- 강화성-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 3번지 / 고종 때 강화도로 천도하며 쌓은 성이다.

#### <먹을 곳, 먹을 곳>

- ▲먹을 곳
- 석모도자연휴양림(032-932-1100)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1(보문사에서 약 5km)
- 투원스 펜션(032-932-3356), 위원 펜션(032-932-8870) 벨에어 펜션(032-933-8161)
- ▲먹을 곳
- 통나무 식당(032-932-3261), 감나무골(032-932-4384) 돌개(032-932-3221), 보문사 입구 식당촌

(주)에스큐트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불교인재를 기다립니다

## 동방불교대학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I.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교는 본 교단의 종립교육법 제193/223호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도사의 의무교육 기관이다.
2. 본 교단의 활동목표수행계획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제)가승은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려취급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불교학과 승가학과 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학습한다.
4. 법제학과 불교미술학과 역경학과 신입생은 매년 학력인증을 원칙으로 한다.
5. 불교미술학과 연구과정은 1년 또는 2년 과정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강의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과 재가자 모두 무사 가능하다. 단, 역경학과 출가자의 경우 본 교단의 교육이수 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험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래에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험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7. 본교는 한국불교대학교에 설립된 중도양성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II. 모집인원 및 편제

학과	모집인원	편제	비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역경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법제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분과	00명	3년제	정규반
	연구과정	00명	1년제 / 2년제	정규반

III. 전형일정

학과	날짜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2. 12. 24(월) ~ 2013. 2. 18(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3. 2. 18(월)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 실기, 면접)	2013. 2. 19(화) 10:00 ~ 16: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3. 2. 19(화) 17: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 입학전형의 필기, 실기, 면접고사는 정학생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됩니다.

IV.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교단의 활동목표수행계획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제)가승(로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과·불교의식·불교회화를 수험하고자 하는 자
3. 본 교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과·불교의식·불교회화를 수험하고자 하는 자

※ 단, 역경학과 출가자의 경우 본 교단의 교육이수 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험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래에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험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V.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3. 주민등록등본 1부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5. 승려취급증서 1부(해당자)	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용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특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VI. 전형료

1. 불교학과, 승가학과, 역경학과 : 50,000원
2. 법제학과, 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본 교단의 포교사자격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과 재학 중 각종 장학제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학사행정 >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용원동 49-1  
TEL: (02)745-2030 FAX: (02)744-3461